

제19회 무대예술제 참가공연  
제17회 부산시민의날 경축공연

# 심청이는 왜 두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원작 / 오태석  
제작 / 연당소극장  
기획 / 부두연극단, 하늘개인날,  
현장, 처용 기획실

■ 공연 일시 : 96. 10. 15(화) ~ 17(목)  
오후 4시, 7시

■ 공연 장소 : 시민회관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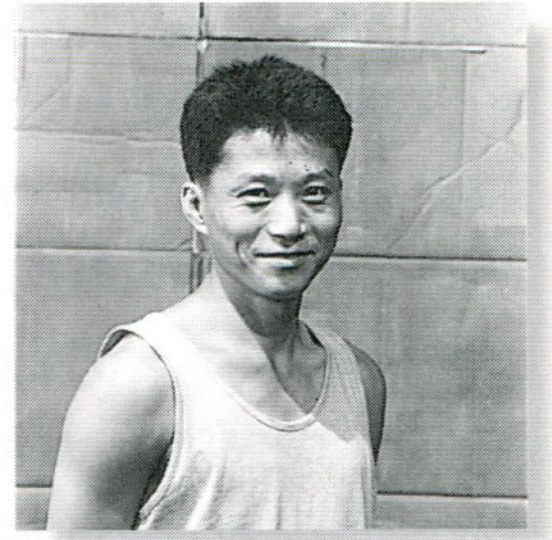
본 공연은 문예진흥기금 일부를 지원 받아 공연됩니다.



김종국  
●  
용왕



김도형  
●  
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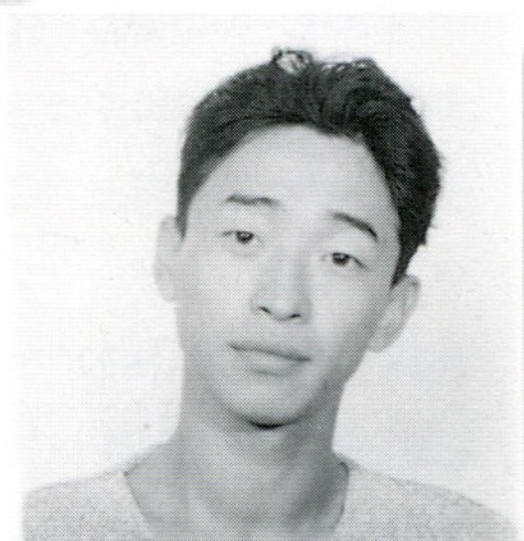


박지혜  
●  
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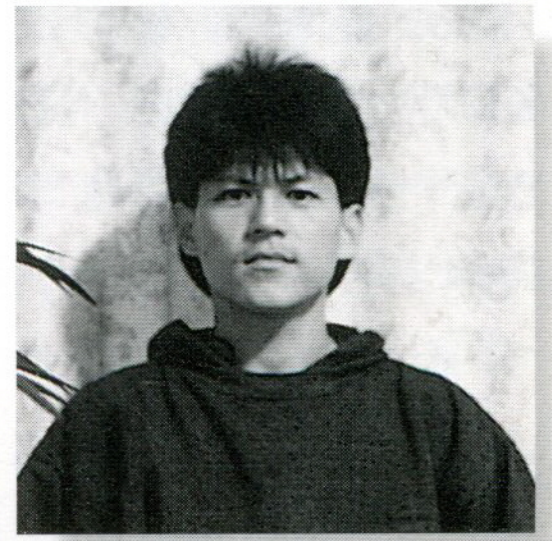


김마리오  
●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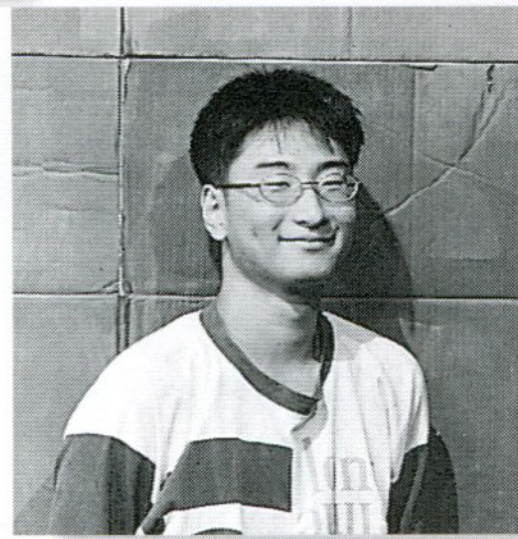
오세원  
●  
수사관/ 보조원



류영운  
●  
손님1, 2/ 김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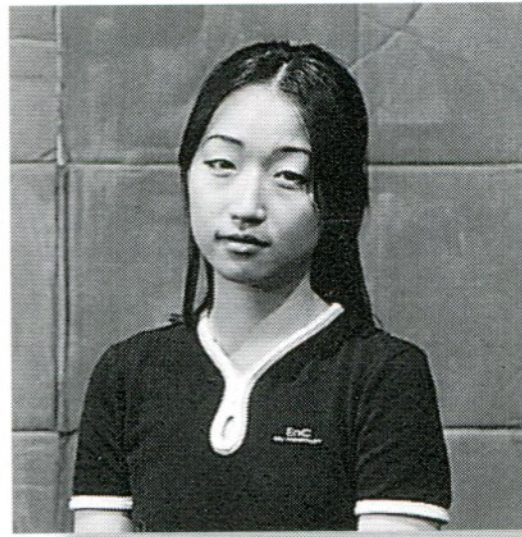
하현관  
●  
승지



이재홍  
●  
기관사







허금진

●  
여자들



정혜경

●  
여자들



문지연

●  
여자들



김성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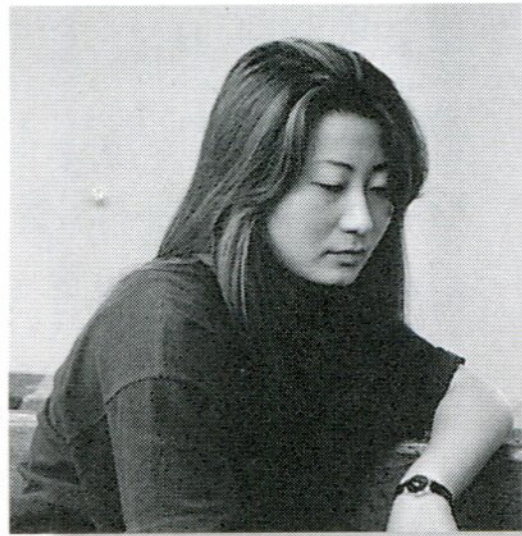
●  
여자들



김혜숙

●  
여자들

스텝



장은영

●  
무대미술



하현관

●  
무대감독





## 패러디와 패스티쉬 사이에서.

허정숙 ● 연당소극장 단원

**오** 태석은 ‘심청이는 왜 두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를 통해서 연극 커뮤니케이션의 돌풍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듯 하다.

작가의 텍스트가 던지는 북적대는 정보와 매우 다양하고 난해한 해석의 홍수 속에서 연출을 맡은 사람은 과감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시노그래피, 그것은 작가의 텍스트와 무대 이미지화한 기호와의 만남을 산출하는 작업이다. 여기 글로 쓰는 지상 시노그래피는 작가의 텍스트와 연출의 내적 이미지의 공통분모를 추출하여 하나의 논리로 즉, 개념화하는 일이라 하겠다.

먼저 텍스트에서 주요 인물을 불러내 보자. 텍스트가 인물을 통해 제시한 방법들이 극히 포스트모던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체의 재해체를 통해 패러디에게 패스티쉬까지 이르고 있다.

오태석은 이미 작가로서 주인공과의 동일시를 포기하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작가와 주인공과의 동일시는 작가의 관점을 투영하고 그것은 동시에 사실주의나 낭만주의나(혹은 이상주의)를 가르는 명확한 분기점이 된다. 이미 작가가 주인공과의 동일시를 포기했다면 사실주의적 기법을 포기한 셈이다. 또 하나의 주요 문제점은 어느 인물이 가장 작가에 가까우냐 혹은 누가 가장 ‘내노라’ 하는 인물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세 인물을 가지고 실험해 보자. 즉 용왕, 심청, 세명.

먼저 작가가 주인공과의 동일시를 포기했다면, 가장 브레히트적인 인물인 용왕을 떠올릴 수 있다. 용왕은 ‘바라보기’ 역의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세상을 내려다 본다. 선도 악도 모두. 그러나, 선과 악에 간섭하지 않는다. 단지 절대적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전통적으로는 그 인과응보적 산물들을 법칙에 맞게 제어하는 인물일 뿐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전통적 수식을 깨뜨리고 만다. 바라보고만 있던 세상 - 연극 속에서 벌어지는 부패한 자본주의 사회 - 에서 가장 악랄하고 역겨운 역을 뺏아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용왕의 인신매매 장면은 우주악의 거대한 숲을 휘젓는 악마적 주걱처럼, 연극의 반동인물로서는 최고의 주역인 셈이다. 그렇다면 용왕은 브레히트의 소위 ‘낮설게 하기’와 아르토의 ‘우주의 중심’ 이론의 재통합에서 형성된 인물이다. 연극론의 거대한 혼돈을 표상하는 인물이다.

우리는 용왕을 통해 작가의 광적 기질 - 그것도 편집증과 분열증이 합치되는 것을 본다. 편집증이 원심력적이라면 분열증은 구심력적이다. 편집증이 미시적이라면 분열증은 거시적으로 상호 반대의 방향성을 가진다.



용왕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는 실제 무대 시간의 해체, 공간의 해체를 불러 일으킨다. 용왕에 대한 이러한 혼돈으로 작품의 시계는 상당히 어두운 편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객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 다른 희망이라고나 할까? 심청이, 그렇지. 심청이가 등장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 심청이를 데려왔을까? 또 심청은 과연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현대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삼단계로 분석해 보자.

문제 1. '심청이는 인당수에 빠졌다'의 통사론적 의미는?

- 심청이는 인당수라는 바다에 빠졌다.

문제 2. '심청이는 인당수에 빠졌다'의 의미론적 의미는?

- 심청이는 댓가를 받고 희생을 치렀다.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문제 3. '심청이는 인당수에 빠졌다'의 화용론적 의미는?

- 심청이는 댓가를 받지 못하고 희생된다.

즉 이 작품에서 심청이의 행위는 가치와 의미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그녀의 희생은 아무도 구원해 내지 못했고, 심청전이 만들어질 만큼 소문도 나지 않았을 뿐더러, 덤으로 받았던 황후직도 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 심청의 주요 모티프는 무엇이란 말인가? 용왕을 졸라 세상으로 나올 때의 조건을 잠시 상기해 보자. 그것은 심청의 세상구경이다. 다만 구경만 한다는 조건. 용왕은 구경만 하지 않을 때, 세상에 뛰어 들 때의 위험에 대해서 심청에게 충분히 경고한다.

용왕은 그 법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다. 심청에게 경고하지만, 자신도 세상 속에 휩쓸리고 만다. 이쯤되면 모든 전통적인 주제의 흥미는 끝장이 난 셈이다.

작가도 오리무중에 빠진 셈이다. 텍스트를 던지고 바로 무대 위로 올라 앉았다. 정세명이라는 인물이 쭈그리고 있다. 세명은 전통적 윤리도덕을 잘 지키려 애쓰는 인물이다. 술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순종적이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회의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명이 가진 순종의 미덕은 자신을 마조키즘적 오락장치로 전락시켜 버리고 만다. 순종의 마조키즘적 저지대로 가라 앉는 순간이다. 그것은 환상이었다. 그러나, 세명의 마조키즘은 사실은 새로운 공격성에 눈뜨게 하는 장치였다.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한 손님 때문에 그의 동료가 죽게 되자, 그의 마조키즘은 광포한 공격성으로 돌변한다. 이미 최대 악마적 역할을 부여받은 용왕을 살인까지 하게 되고, 인신매매선의 새로운 영웅이 된다. 정세명은 인간팔기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동원한다. 그러나, 더럽게나마 살수 있을 꽃다운 여자들을 하나하나 죽일 핑계만 만들어 낸 셈이다.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못한다. 게다가 그는 절대적 존재인 용왕조차 죽이고 만다. 용왕살해는 더욱 거대한 혼란만을 야기시킨 격이 되고 만다.

이렇게 세 인물의 패스티쉬는 무대를 광포하게 휩쓸어, 관객은 이 세 명 모두에게 역겨움을 느낀다. 마치 살인 행위의 현장검증에서 피해자나 가해자나 경찰이나 그 어느 쪽의 정서에도 가담하지 않듯이, 관객들은 희한한 세상을 구경할 수 있을 뿐이다.



## 또 다른 탄생을 꿈꾸며 ...



천은경 ● 연출

**사** 기를 느낀다. 통증이 부쩍 심해진다. 진찰결과 아이의 상태가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분열증세를 보이는 아이는 희망-절망, 신념-회의라고 한다.

행동의 방향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은 결정된다고 한다. 나까지도 위험하다고.

※ 처방전 : 호흡 고르기, 명상하기, 걷기 운동

어머니가 항상 걱정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다. “니가 정말 연극을 하고 싶다면 니 성격부터 바꿔야 할끼다. 엄마는 연극이나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밝은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니는 너무 어둡다.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세상속의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니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연극을 제대로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된다. 제발, 좀 밝아져라. 그리고 생각 좀 줄이고 ... .”

외관상 나는 별 걱정없고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인데도 어머니는 걱정이 되시나 보다.

하지만 그 말씀이 지금의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젊은 날의 대부분은 뭔가 회의적이고 어두운 사고들이 중점인건 사실이다. 그 무거움에 짓눌리는 고통이 있어야 나이를 들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침된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가치중심이 있어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힘들지만 계속 증진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한다.

엄청난 모험수를 걸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대표님께 폐만 끼친것 같아서 걱정스럽다.

식구들과의 작업과정 속에서 생기는 마찰은 생각보다 컸고 또 조금씩은 상처를 입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제 겨우 출발선상에 섰다고 생각하고, 또 가야할 길은 엄청나게 남아있다.

먼길을 같이 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이젠 서로 밀고 끌면서 나가는 일만이 남았다고 생각된다. 무모한 연출 밑에서 마음 고생한 배우들, 그리고 무대 일에 머리 빠개진 스텝들에게 말하고싶다.

이젠 정말 해 볼 만하지 않냐고.

첨가 : 1. 가끔씩은 내가 심청이가 아닌가 생각도 했다. 또, 가끔은 세명이가 되고 싶었다.

2. 연극이어야 한다. 연극일 수 밖에 없고, 그래왔고, 그래야 한다.